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이 인간의 모습 벗기 전에 이 마음도리 알아야

삶의 고비를 거치게 되는데…

문) 세상을 살다 보니 삶의 고비를 여러 차례 거치게 되는데 그 때마다 저의 형님이 도와주시곤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지만 형님한테는 너무 죄송해서 이제는 제 힘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의 힘을 키우고 싶습니다.

답) 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여러분 앞에 다 주어져 있으니 주저 마시고 어떠한 분야에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 실험을 해 보세요. 비리비리 그냥 남한테나 기대고 그냥 남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죽든지 살든지 좀 결단성이 있어야죠. 그러지 않고서야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고비를 넘기려면 이 세상 끝간 데 없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이 생기겠습니까. 고생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사는 게 고생이에요, 알고 보면. "그럼 살지 말라는 얘기죠?" 이럴 테죠. 살더라도 맛을 알고 사시라 이거죠. 이 세상은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고정됨이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만남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먹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나 보세요. 그런데도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다 보니까 인제 지쳐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속으로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저놈으로 인해서 망했지. 저놈이 잘못해서 뭘 어떻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면 꼭 꿈대로 일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네 기와집 양쪽 대들보가 그냥 무너져서 내렸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이건 껌뻑 죽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건 뭐 큰일이 났죠, 뭐. 그래서 내가 "허, 모든 업보가 모두 부서져서 내리는구나. 모든 업보가 부서져서 내리니까 너희는 좋은 일 있겠다." 그러니까 날 똑바로 쳐다보는데 어이가 없죠, 인제. 날 봐도 눈초리만 나한테 있지, 지금 초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이다. 너희 좋은 대로 생각해서 거기 놓는 거지, 사람이 사량으로 '이건 절대로 못한다, 이거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못한다.' 이렇게 결정 짓지 마라. 할 거든지 못할 거든지 나쁜 거든지 좋게 생각해서 감사하게 놓고, 또 잘되는 거는 잘되는 대로 감사하게 놓고, 자기 주인한테 모든 거를 다 맡겨라." 그랬죠.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사람이 한생각을 잘함으로써 이 세상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한생각 잘못해서 창살 없는 구멍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모 빚도 못 갚고 은혜도 갚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요소들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렵니까? 여직껏 물 주고 공기 주고…. 야, 흙에서 살고, 바람 주고 불 주고 다 한 거, 그 은혜는 또 어떻게 갚아요? 그건 돈 안 받고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좋다고 하시겠지만 그게 다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넉넉하게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자력과 통신력, 광력, 전력, 그런 것이 다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로 믿고 실천을 하는 데에 멋진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멋지다는 건 묘법이라는 뜻입니다. 묘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법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뭐 불가사의하다 이러고 아주 위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안 해 보셔서 들어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모두들 그런 거죠.

나는 어떤 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장면 한 그릇을 못 먹어 봤다면…, 왜 손으로 자장면 만드는 거 있죠? 예전에 자장면 한 그릇 먹어 본 지가 한참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국수로다가 해서 그걸 하니 무슨 맛이 나요? 그러니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그 자장면 참 맛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 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다면 생각이 뭐 납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법문 하는 거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들으심으로써 이 속의 업식들이 전부 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듣는 순간, 이 수십억의 의식들이 들어요. 듣는 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요. 이 사람이 마음으로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녹아지지 않아요

문) 저의 가족과 시동생 가족이 함께 사는데 동서가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살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니 미워하는 마음이 녹아지질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

답) 이 마음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체 만물만생하고도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립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하지, 그렇잖으면 무엇 때문에 수도합니까? 그런데 모두가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짓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분해지고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악업 선업을 받은 그 자체를 녹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믿고 "스님, 이러이러한데 이거는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알았어." 하게 되는데 '저 조그만 스님이 뭘 알아, 알기는?' 이렇게 업신여기고 의심하면 오히려 그르치는 겁니다. 요만큼도 에누리가 없는 사실이죠. 마음을 여러분이 쓰는 대로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한 명이 오시든지 두 명이 오시든지, 열 명이 오시든지 백 명이 오시든지 그런 건 상관 안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한 몸 속에 수십억 개의 중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뚱이 속에 그렇게 악업 선업이 들어 있는데, 그 들어 있는 대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주어져 있는 것을 그냥 내놓을 뿐이지 이거를 잘 돌리거나 못 돌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운명 팔자가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설법하는 거를 듣고 '아, 이거는 모두가 내 몸속에 있는 거니까 나 아님이 없구나. 모두가 한마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음파가 속으로 모든 악업 선업의 업식들이 다 듣고 한마음이 돼 줘요. 그리고 도둑질을 하러 가자 이런다면 도둑질을 하게 만들고, 강도짓을 하게 가자 하면 강도질을 하게 해 주고, 좋은 일을 하자 그러면 좋은 일을 하게 해 주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누가 말립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설법을 듣고 하나하나 그 내 마음을, 내 중생의 마음을 다스려서 생각을 해서 거기 놓는다면 모든 중생이 한마음으로 되고 천백억화신으로 화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한마음이지만 이 속에 들

☞14면으로 계속

우주의 큰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치유한다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진 자이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르고 곧게 자라게 하는 힘이며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며 육체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니라.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주는 힘이니라. 나의 힘을 光大力이라 할 것이며 이 힘을 받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들에 앞장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지어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산 자나 죽은 자나 영혼이 살아 있음은 분명하니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깨달아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영혼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지어다.
나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빛이며 또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빛이고 힘이다.
넓고 높은 깊은 마음 나와 비교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빛이고 힘이니라.

※ 우주의 빛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현교빛치유센터 원장 김건희
예약문의 : 02)568-3778 / 010-2648-3778 (오전 9시~오후 8시)

(재) 해동불교 연합회

봉 **종도입종 안내** 축

본 종단에서는 창종 15주년을 맞아
무료입종 안내를 드립니다.

불국정토를 위해 정진하시는 전국의 스님들과 재가불자님 또한
부처님을 모셔놓고 수행중인 모든 불보살님 및 법사님은
본 종단에 입종하시길 기다리며 환영합니다.

입 종 안 내

ㅡ .구비서류 : 1. 사진 3매(4x5) 2. 주민등록등본 1통
■ 등록하시는 모든분은 사암등록증, 스님임명장 승려증을 발급하여드립니다.
(유발보살님, 법사님은 본 연합회에서 자격증을 교부하며, 세무서에 등록하여 연말정산를 발부할 수 있도록 교부합니다.)

수행정진하실 예비스님 및 행자 모십니다.

(재) 대한불교 해동조계종 총본산 **종정 청암** 합장

불기 2554년 9월

입 종 경북 성주군 금수면 어은리 343번지 적산사
문 의 054) 931-0793 010-4809-2638